

왜 가톨릭 신자들/프란치스코 재속회원들이 초종파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By: Kelly Moltzen, OFS

고등학교를 마치고, 캐프친 유스 & 가족 사목회(CYFM)의 졸업생이 되고, 대학으로 떠나며, 나는 CYFM 을 하면서 가졌었던 그러나 대학 캠퍼스 사목을 하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프란치스코 공동체의 카르스마를 조금씩 더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종파적인 크리스찬 학생회인,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을 통해서 그러한 카르스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몇의 가톨릭 대학생들이 가톨릭 대학 사목회와 인터발시티(InterVarsity)에 모두 참석하는 동안, 또 많은 개신교 학생들도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터발시티를 통해서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다른 크리스찬을 만나고 친교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봉사 프로젝트를 함께 했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경험 하나는 셰인 캘리본(Shane Claiborne) “저항할 수 없는 혁명(The Irresistible Revolution)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으로 이사했을때 저로 하여금 지향적 공동체에 살고 싶어하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가톨릭신자가 아닌 몇몇의 사람들과 브랑스(Bronx)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도로시 데이(Dorothy Day)와 그녀의 가톨릭 노동자 운동과 리차드 신부님(Fr. Richard Rohr)과 셰인 캘리본처럼 레드 레터 크리스찬 운동(Red-Letter Christians,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을 다른 말들과 구분짓게 하기위해 빨강색으로 표기한 성경을 선호)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터발시티와 레드 레터 크리스찬 운동의 멤버들은 LoGOFF (Local, Green, Organic, Fair-trade, Slave-Free)를 시작해서, 뉴욕에 신앙에 뿌리를 둔 조직화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식품, 신앙 그리고 건강 격차 컨퍼런스를 조직화하여 건강 격차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오랫동안 우리가 성체적인 식사 연습으로, 식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적당한 가격과 영양분이 있는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양분이 적은 고도의 가공식품에 대한 하느님께서 주신 음식의 그대로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자각을 통해서 말입니다.

가톨릭이 아니지만 프란치스코의 가슴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자주 나의 브랑스 공동체 안에서의 여정에 동반해 주었습니다. 연쟁이나 교회 역사에 다른 의견이나 기독교적인 분열이 아닌 동지애와 희망과 꿈과 목표를 나누는 그런 저녁모임에 참여해 주는 걸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삶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란치스코 가족은 사실 초종파적이라는 걸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 가치를 두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있고, 자신들의 교파안에서 성인을 따르는 단체를 만들고, 프란치스코 유니티와 프란치스코 액션 네트워크(FAN)안의 조인트 위원회를 통해서 평화, 정의, 창조물에 대한 존엄성이라는 그들의 미션이 우리의 것과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교파의 프란치스코적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 그리고 공동의 선함을 위해서 종교를 초월한 협력을 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성취해 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한 때는 FAN 이 그들이 참여할 모임이라든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그런 류의 인맥이라는 걸 보지 못했었지만, 내가 프란치스칸 액션 네트워크에 좀 더 참여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종파를 초월한 사람들의 모임이 신앙과 정의라는 목표에 주도되어 가는 내 삶에 좀 더 크게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의 한부분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나는 하느님의 왕국을 다른 교파 크리스찬과 함께 만드는 방법을 찾거나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와 나눌 수 있는 경험을 듣는 것 대신에, 자주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프란치스코 재속회원들이 프란치스코 성인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마치 가톨릭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실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례, 소명, 인식, 예수님을 중심에 둔 영성 그리고 예언자적 음성 가치 나누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프란치스코인 혹은 프란치스코적인 가슴을 가진 개개인들이 지상에 하느님의 왕국을 모셔오는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의 운명을 자신의 것에 연결지어 보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하느님의 확장된 우주 안에서 창조의 협력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며, 평화와 정의와 창조물의 존엄성에 소명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우리의 연대인것입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이 아닌 그들이 사실은 가톨릭 사회적 가르침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도 참되게 살아가는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출생이후의, 전 생의 과정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는 이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며 프란치스코인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창조물 안에서 상호 연관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프란치스코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프란치스코적인 가치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교리안에서 죄를 숨기거나 배제하면서 곁으로 들어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경건함을 위해서 어떤 특정 교회의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과 그 행동들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 프란치스코 성인, 클라라 성인 그리고 교회 역사안의 많은 다른 예언자적인 목격자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따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존경하고 일년에 한번씩 기억하도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시대에서 성인으로 추대할 인물로 고려되는 도로시 데이도 말했습니다. “ 나를 성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쉽게 잊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